

# SPACE21 사업 1단계 종합체육관부터 순차적으로 완공



▲ 서울캠 행복기숙사



▲ 서울캠 간호과학대학·이과대학·한의과대학이 사용할 2개동 건물



▲ 국제캠 종합체육관

## 캠퍼스 종합개발계획 총정리

설지연 기자 jy0622@knu.ac.kr

#. 2015년 시작된 SPACE21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07년 SPACE21 사업이 구상된 이래로 10년 만이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SPACE21 사업이 첫 번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우리 신문은 SPACE21 사업의 진행과정과 이슈를 되짚어 봤다.

SPACE21 사업의 시작은 지난 2007년 '캠퍼스마스터플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캠퍼스마스터플랜'은 우리학교를 연구 중심, 특성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3단계로 나눠 계획됐다.

과거의 캠퍼스 마스터플랜  
오늘의 SPACE21 사업

당시 캠퍼스마스터플랜은 서울캠퍼스(서울캠)에 5개 단과대학관과 중앙도서관을 신축하고 2020년까지 산학협력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시설물을 새로 짓는 안으로 기획되었다. 국제캠퍼스(국제캠)에는 4개의 단과대학관을 재정비하고 목련관, 종합체육관의 2개동을 신축하는 대규모의 캠퍼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도중에 구성원간의 소통문제 등으로 공사가 미뤄졌고, 2010년에 착공식을 가졌으나 양 캠퍼스의 캠퍼스종합개발계획은 2011년 재정문제로 사업이 대폭 축소되기에 이른다.

2011년 재정악화의 영향으로  
캠퍼스종합개발계획 대폭 축소

2013년 8월 'SPACE21 사업단'은 서울시청에 서울캠 캠퍼스종합개발에 대한 '세부 시설조성계획'을 접수하고는, 서울캠 조감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은 사라진 노천극장을 재정비해 잔디광장을 건설하고, 잔디광장 동쪽 노천극장의 소라관이 위치하던 곳에 붉은색 벽돌로 원형 모양의 글로벌관을 건축할 계획이었다. 또한 소라관은 대운동장 남쪽에 새로 지을 계획이었다.

이외에도 한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이 사용할 쌍둥이 건물 2개동을 농구 코트 부근 부지에 건설하며 멀티동을 선승

문 부근에, 신축 기숙사를 대운동장 스탠드 부근에 건설할 예정이었다. 이는 2014년 7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숙사 인·허가 문제로 착공은 7월에 진행되지 못하고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시 행복기숙사 건설이 예정되자 주민들이 동대문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동대문구청은 주민과의 협의를 강조하며 기숙사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는 동대문구청의 인·허가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했고, 그 여파로 서울캠의 SPACE21 사업은 다음해로 미뤄졌다.

## 서울캠, 오랜 난관 끝에 2015년 착공

한 차례의 고비를 넘기고 SPACE21 사업 첫 계획이 나온 지 8년만인 2015년, 대학본부가 사업비 예산안을 경희 이사회

에서 승인받으면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예고했다. 하지만 재정문제는 다시 SPACE21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캠 총학생회가 학교의 자금마련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당시 대학본부 측이 양 캠퍼스 SPACE21 사업비로 책정한 금액은 총 1,750억 원으로 서울캠에 800억 원을, 국제캠에 950억 원을 배정했다. 이중 국제캠 종합체육관 건설비용 약 225억 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밖의 사업비는 기금과 고정자산 매각수입을 통해 얻은 94억 원 외에, 기채 신청을 통해 500억 원을 확보하고 추가 운영수익 등으로 채운다는 학교 측의 계획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 총학은 학교 측의 자금마련 계획이 '불충분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학교의 대출 상환 계획이 불확실하고 구성원간과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학교와 총학이 'SPACE21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기채 상환에 대해서 특별기구에서 1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항목을 포함한 7가지 항목에 대해 협의를 거친 후 이 문제는 마무리 됐다.

## 우여곡절을 넘어 지어진 종합체육관

서울캠에 비해 사업 시작이 늦어진 국제캠은 2013년 12월에 캠퍼스 입면도를 공개하며 SPACE21 사업의 첫발을 내딛었다. 당시 공개된 입면도에 따르면, 전자정보대 옆 야구장 부지에 약 7,000평 부지의 제

2 공학대학을 신설, 생명과학대 맞은편에 2,800평 규모의 종합체육관을 건설하고 외국어대학 1,000평을 증축, 리모델링할 계획이었다.

이는 구릉지를 깎아내고 4,000평 규모의 종합체육관을 건설하겠다는 2010년 계획안보다 축소된 사업 규모였다. 국제캠의 SPACE21 사업이 축소된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문제였다. 최초 SPACE21 사업 계획 단계인 2010년에는 사업비 1,795억 원을 책정했었다. 하지만, 2011년 양 캠퍼스의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후, 2013년 사업비가 914억으로 책정되며 기존 계획보다 축소된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2017학년도 1학기에 이르러, 이런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SPACE21의 1단계 사업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캠 대운동장부근의 행복기숙사를 비롯해 간호과학대학·이과대학·한의과대학이 사용할 건물 2개동, 그리고 국제캠의 종합체육관이 올해 상반기 안에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캠의 행복기숙사와 국제캠의 종합체육관은 4월 내에 완공 될 예정이다.

## 행복기숙사 수용률 5.7% 상승

행복기숙사는 지하 2층, 지상 10층이며 2인실 458실, 장애인용 10실이 배치돼 총 926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로써 서울캠 기숙사 수용률이 10.5%에서 16.2%로 상승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2년 6월, 정부의 '대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에 선정돼 공공 기금을 지원받아 입사하는 학생들은 2인실

기준 월 19만 9천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기숙사비를 낸다.

## 쌍둥이 건물, 강의환경 개선 기대

간호과학대학·이과대학·한의과대학이 사용할 2개동 건물은 쌍둥이 건물로 지하 3층, 지상 10층의 13,979평 규모이다. 1개동은 한의대 단독으로 사용하고 1개 동은 간호대학과 이과대학이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간호대학이 강의실 9실, 이과대학이 강의실 3실, 한의과대학이 강의실 7실을 사용하였으나 건물이 신축되면 각각 12실, 12실, 11실로 강의실 수가 늘어나게 되어 강의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종합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다. 매인 시설이자 1,800명까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다용도 체육관은 경기장 및 공연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체육관 이외에도 지하층에는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태권도훈련실 등이 마련된다. 종합체육관의 내부 시설들은 운영방식을 정한 후, 모든 학내구성원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SPACE21 사업은 갈 길이 멀다. 본래 계획 중 일부만이 완성됐을 뿐이다. 2013년 입면도를 공개할 당시의 계획대로라면 SPACE21 사업은 2016년 상반기에 마무리 됐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건물들은 아직도 노후한 채로 그 자리에 있으며 학생들은 건물이 신축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PACE21의 1단계 완공을 마냥 기쁘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다.

## 학군사관(ROTC) 58·59기 모집안내

2017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 ●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20~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58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59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7년 3월 1일 ~ 3월 3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http://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 8.(토), 합격자 발표 : 4. 28.(금)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 5. 1.(월) ~ 5. 26.(금), 합격자 발표 : 6. 16.(금)
  - 3차 신원조사, 신체검사 : 6. 19.(월) ~ 8. 11.(금), 최종 합격자 발표 : 8. 25.(금)
- 문의처 : 육군학생군사학교(043)830-6031, 지원대학 학군단 | 서울 02-961-0085 ~ 6  
국제 031-201-3271 ~ 2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http://www.armyofficer.mil.kr)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